

새해에도 전주시민 마음 건강 돌본다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전문심리상담 확대 · 1월부터 4주 · 8주 과정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2024년 새해에도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마음치유센터는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전주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새해에도 전문심리상담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상담 필요시 빠

른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상담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 각종 심리적 문제를 전문심리상담사와 함께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심리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 △자기 이해와 성장 △심리적 안정 등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은 낮추고 자신감 및 자아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덕진보건소 마음치유센터 또는 외부(동사무소 등)에서 운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1271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척도 검사를 진행한 결

과, 응답자의 우울·불안 수준이 평균 31%, 스트레스 수준이 14% 각각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2024년도 전주시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며 "마음치유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원룸 불법 개조 후 전세보증금 5억 '꿀꺽' ... 60대 집주인 송치

원룸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임대한 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6년여 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18명으로, 피해 금액만 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은 퇴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으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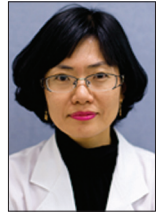


겨울비 머금은 벚꽃 연이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 15일 전북대학교 교정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전북대병원 약제부, 우수포스터상

'원내 조제 알림 서비스' 지원업무개선 진료지원부문 수상

전북대학교 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약제부가 한국 의료질향상학회가 주관한 2023년도 가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허미정 약제부 조제팀장

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약제부가 자체 개발한 원내 조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조제 접수 및 접수 확인을 위해 환자가 약국 투약구를 방문하는 불편을 제거했다. 또 원내 조제약에 대한 미인지로 인해 발생하는 원내조제약 미수령 건수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허미정 조제팀장은 "이번 업무개선 활동을 통해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었다. 더불어 조제 과정 중 환자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전주시, 장애인가구 장애인 시설물 설치 사전 신청 접수

전주시는 장애인가구에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사전 신청을 지난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으로 올해와 동일한 5320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가구당 380만 원씩 총 14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거

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시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순차적으로 주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부터 기존 농촌동에 한정했던 사업을 도심지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수혜자의 만족도가 큰 사업인 만큼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설공단, 효자추모공원 환경 개선... 시민 편의 증대

민간 장례시설들과 안내판 정비 · 주차 유도선 도색으로 교통 혼잡 예방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전주승화원 인근 민간 장례시설들과 함께 정리에 나섰다.

지난 15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효자추모공원 입구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던 장례 시설들의 안내판이 모두 철거되고, 통합 안내판이 새로 설치됐다.

각 시설들이 임의로 설치한 탓에 한데 뒤엉켜 있던 여러 안내판들이 안내판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새 안내판은 추모공원 안 갈림길 총 3곳에 설치됐다.

미관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방향과



깔끔하게 정리된 전주 효자추모공원 안내판.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거리 등 각 시설의 정보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문제 의식을 가진 공단의 제안에 민간 장례시설들이 흔쾌히 응하면서 추모공원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다.

전주승화원 주변에는 장례식장과 봉안당 등 총 7개 민간 장례시설이 있다.

공단은 또 운구 차량과 유족 차량이 뒤엉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승화원 입구 바닥에 주차 유도선을 새로 그려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구대식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승화원 현대화 공사와 더불어 사소한 부분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해답을 찾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열린교육바우처 수강생 모집

특히 학원 수강료의 50%는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전주시에 등록된 가맹학원에서 분담해 학생들은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열린교육바우처' 수강생 480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240명씩 총 480명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학원 수강료(초등학생=7만5000원, 중학생=8만5000원)와 교재비(2만 원)가 1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 과목은 음악과 미술,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이다. 단,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경우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법 적용으로 인해 지원 대상 과목에서 제외되며, 체육 과목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 지원하지 않는다.

참여 희망 학생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열린교육 바우처 수강학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8:00 **장소 | 순창장애인체육관**

회장단 및 감사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하나되어 미래로 더 높이 도약하는 순창청년회의소에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창립 제4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과 아울러 **신·구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창청년회의소 회장 **이시열**
2024년 회장 **이진선**

이임회장
이시열

취임회장
이진선

상임부회장
신희성

내무부회장
오유준

외무부회장
김우재

감사
황영하

감사
김도민

전역회원
선택수
서연수